

이승의 감로수 씻어내고 정토에 왕생하소서

故대원화 정옥녀 선생추모음악회' 10월 14일 공연

흰나리꽃

들녘에 흰 나리꽃 한송이/ 꺾게 피어 그 향기 그윽하리나/ 오늘 그 꽃잎을 접고/ 흥연히 이승을 떠나니 오호 오호/ 모진 비바람 불어 닥치고/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가녀린 줄기로 끈게 서서/ 한결 같은 믿음과 정진으로/ 굳건히 견디며 꽃을 피우고/ 그 향기 고루 배풀더니만/ 아이 그리 서둘러 떠나시었소/ 왕생길이 그리도 급하시었던가/ 흰나리꽃 쓰러진 들녘에 서서/ 사무치는 이마를 어저 달래나/ 이승의 한 감로수로 씻어내고/ 부디 정토에 왕생하시어/ 윤회 전생 해탈하시고/ 영원토록 미타 품에서 만복을 누리시라

작사가 반영규 거사가 故정옥녀 선생의 49재를 위해 작사한 '흰나리꽃'에 작곡가 김만석 씨가 곡을 붙여 초연되는 무대가 마

련된다. 일생을 불음홍포를 위해 헌신하다 타계한 '故대원화 정옥녀 선생추모음악회'가 10월 14일 오후 7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다. 정옥녀 선생은 청룡사 마야합창단을 창단하는 등 한국 불교음악 1세대를 이끈 장본인이다. 이에 청룡사 마야합창단은 38주년 기념음악회와 더불어 올해로 사갑(死甲)을 맞는 정옥녀 선생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마련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범운 스님(청룡사 주지)과 작곡가 정부기 교수의 작품을 중심으로 무대를 꾸밈으며 불교전문 연주단체인 바로오페라단이 함께 협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의 지휘를 맡은 이준형 씨는 그녀가 한국 불교음악을 이끈 1세대라고 강조한다. "선생님께서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청룡사 합창단을 창단하고 이끈 것은 물론 미국 카네기홀에서도 찬불공연을 올리는 등 불교음악의 현대화를 이끈 1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룡사 합창단은 도선사 조계사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불교합창단으로 불교음악 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바로오페라단과 청룡사 마야합창단이 주최하는 '故대원화 정옥녀 선생추모음악회'가 10월 14일 오후 7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다.

불교음악 1세대 정옥녀 선생 사갑 맞아 추모 음악회 마련 49재 추모시 '흰나리꽃' 공연도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는 작사가 반영규 거사가 작사한 '흰나리꽃'이 공연돼 주목된다. 흰나리꽃은 정 씨의 49재에서 반 거사가 바친 헌시에 김만석 작곡가가 곡을 붙여 이번 무대에서 초연된다. 반 거사는 정

옥녀 선생이 불교음악에 일생을 바친 열정적 불자 음악인이었다고 강조한다. "정옥녀 씨는 40년 전 삼보법회 청년회 회원으로 찬불가를 배웠죠. 이때 합창단이 오늘날 사찰합창단의 효시가 되었어요. 이후 김용호 선생에게 사사를 받고 죽는 날까지 불교음악을 위해 헌신한 불자입니다. 특히 90년대에 함께한 창작국악교성곡 '불발에 피는 꽃' 공연은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불발에 피는 꽃'은 지장보살의 전생담을 교성곡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공

연 팀들이 직접 중국 구화산까지 김교각 스님의 흔적을 찾아 순례 여행을 다녀온 후 만든 공연이다. 반영규 거사가 작사하고 김희경 씨가 작곡한 곡을 국립극장에서 공연했는데 당시 정옥녀 선생은 지휘를 맡았다고 한다.

바로오페라단과 청룡사 마야합창단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소프라노 김양희, 테너 이준형, 김성녀 등이 출연한다. (02)2612-0609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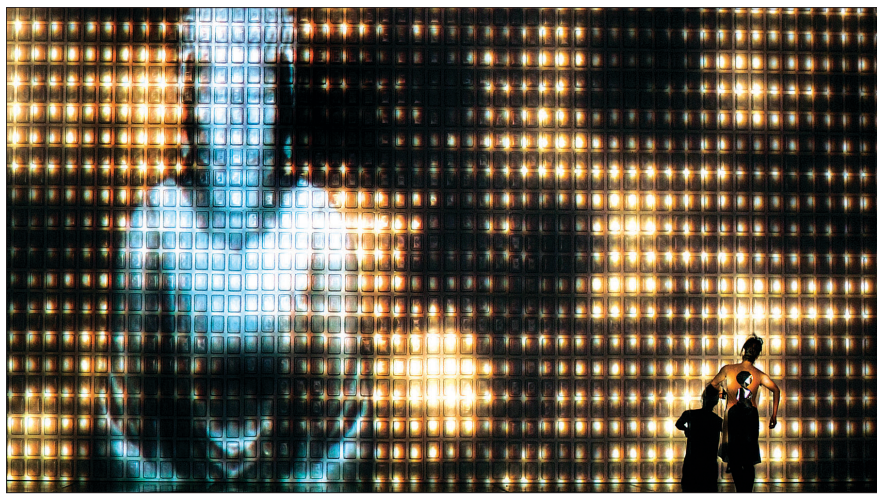
故 정옥녀 선생은

故정옥녀 선생은 1954년 8월 22일 서울에서 출생해 고려대 경영대학원과 영국 옥스포드대학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중앙대 예술대학원사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故김용호 선생에게 음악이론과 지휘를 사사하고 故김규환 선생에게 작곡을 사사했으며 지소영 선생에게 발성법과 음악이론을 사사 받았다. 이후 1976년 청룡사 마야합창단을 창단하고,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청룡음악제 광명시민 위안의 밤, 청룡음악제, 2002년 4·8 연등축제 연합지휘 등 2002년까지 불교행사 및 연주회를 850여 회 개최했다. 2006년에는 미국 국무성 초청 대한불교관음종 세계평화기원대법회 합창단을 지휘했으며 같은 해 (사)삼보불교음악협회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2006년 9월 30일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강렬한 몸짓언어로 '佛像' 풀어내

(불상)

국립현대무용단 '불쌍' ... 10월10일~11일 국립극장서



국립현대무용단의 '불쌍'이 10월10일~1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오른다.

국립현대무용단의 '불쌍'이 10월10일~1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오른다. 동양적 세계관을 현대무용과 라이브 디제잉, 설치미술, 영상 등을 통해 현대적으로 풀어낸 이 공연에는 설치작가 최정화, DJ 소울스케이프, 패션디자이너 임선옥 등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최고의 무대를 펼친다. '불쌍'은 안애순 예술감독의 대표 레퍼토리 작품으로서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트 서밋 인도네시아 2013'의 초청공연으로 현지 관객의 기립 박수를 받은 바 있다.

국립현대무용단은 "동양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종교적 아이콘인 불상은 그 기원지를 떠나 시간과 장소를 유동하며 변형되고 소비된다. '불쌍'은 동양의 것도, 서양의 것도 아닌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불상의 모습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에 걸쳐 있는 현대인들의 문화적 취향을 드러낸다. '불쌍'의 무대는 다양한 이미지가 더해지고 다시 무너짐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한다"고 설명

한다. 강렬한 무용수의 움직임과 사운드, 그리고 이미지가 서로 충돌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변종되는 장면은 지속적으로 문화의 유입과 변화 속에 놓인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공연은 선택이 아니라 무방비로 문화의 침범에 노출되는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예술감독인 안애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패션과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패션디자이너 임선옥의 무대 의상, 최근 국내의 개인전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설치예술가 최정화의 불상 오브제와 종전연색의 화려한 소쿠리가 어우러진다. 여기에 힙합과 라운지, 소울 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DJ 소울스케이프의 라이브 디제잉과 키치적인 영상들이 더해진다. 예술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들의 협업은 무용수들의 유희적이고 즉흥적인 움직임과 만나 독특하고 강렬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입장권은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이다. (02)3472-1421 정혜숙 기자

꽃비 내리는 극락세계 화폭에 펼쳐

통도사성보박물관,은해사 괘불탱화전 내년 4월 22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제31회 괘불명화 특별전에 '영천 은해사 괘불명화'가 내년 4월 22일까지 전시된다.

은해사 괘불명화는 1750년에 보충, 제일 등 2명의 화승에 의해 그려졌다. 61~64cm 내외의 비단 9조각을 이어 붙여 총고 1,167cm 화고 471.85cm의 거대한 화면에 입상 형식의 여래를 그렸다. 화면의 상부와 좌우 녹색 변에는 범자를 적어 넣은 주색 원문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고 각 원문마다 한 자씩 적은 글자는 상부 15자, 좌우 각 33자로 구성했다.

화면 상부에는 화려한 보개장식이 영락을 늘어뜨리고 화려한 색조의 극락조 3조가 하늘을 날며 그 아래로 붉은 꽃송이의 산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중앙의 본존 여래는 두 개의 연꽃 위에 두 발을 내리고

서서, 오른손은 아래로 늘어뜨리고 왼손은 가슴 아래에 대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있다.

권속을 대동하지 않고 본존 여래만을 단독으로 등장하는 단순한 형태로 이러한 불화는 대개 영산회상의 석가모니불로 인식되어 18세기에 유행했던 형식이다. '은해사 괘불명화'는 주존의 구성과 배치, 상하의 습문양, 연꽃 위에 두 발로 서있는 장면 등은 같은 해에 제작된 '은해사 대웅전 아미타후불명화(1750)'와 동일한 양식이다. 은해사 괘불명화는 여기에 주존 아미타불만을 분리하여 독존상으로 도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해사 괘불명화는 기존의 영산회를 위한 괘불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정토왕생과 보다 밀접한 아미타불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055)382-1001 정혜숙 기자



영천 은해사 괘불명화

취운향당, 20주년 특별전시

10월 12일까지 울산 중강갤러리서

한국전통화가 취운향당(대표 능혜 스님)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다. 10월 12일까지 울산 중강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화과 다양한 향 도구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향의 역사와 유래, 전통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현대인들의 삶과 문화를 유쾌하게 할 침향발효차를 소개한다. 또한 향과 향로, 향 도구, 침향과 각종 향원목, 침향비누 등을 선보인다. 한편, 취운향당 침향발효차 감로다반은 차 관련 제품으로 스위스 영양학회지(NUTRIENTS)에 국내 최초로 등재된 바 있다. (054) 933-6371

생전예수재 장엄 안내문



귀의삼보하옵시고!
가람수호에 정진하고 계시는 각 사암 대덕큰스님 법체 존안하옵시니까.

소승은 대구시내에서 불교의식 및 범음, 범패교육원을 개설하여 불교의식을 지도하고 있는 원장(동현)스님입니다. 올해 소승이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이 들어있는 갑오년을 맞아 예수재 장엄일체를 제작 하였습니다.

부족하나마 50년을 불교의식을 해온 것을 토대로 의식에 밝은 스님들의 고견을 얻어 장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예수재를 올리는 각 사암 스님들을 위하여 올바른 재단 설치와 번 설치 순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수재장엄 구입방법은 전화로 접수하여 주시고 받으실 주소와 사찰명,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물품대금은 선결제입니다.

통장 입금 확인후 3일 이내에 택배로 배송해 드립니다.

- 물품구입처 : 대구불교 의식 범음,범패 교육원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8-11-906861-6 (예금주 : 주동주)
- 예수재 의식을 집전하실 스님도 알선해 드립니다.

대구불교 의식 범음,범패 교육원장 석 동현 합장

동현스님 장엄 (생전예수재)

상표출원번호 제 40-2014-0040849호

- 1 대번
- 2 상단,중단,하단 위패
- 3 시왕단
- 4 26위판관 / 37위귀왕
- 5 사자단
- 6 고사단
- 7 영단
- 8 금란방, 정제소
- 9 예수시왕도량
- 10 일백사위 사화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물2동 871-1번지 ● 문의처 : 전화 053)781-4200 / HP 010-2547-4200